

다산포럼



장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산비탈이 끝나고 평편한 땅이 시작되는 지점에 들보 리수(보리밥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6월의 햇살로 그 열매들이 붉게 익어 가고 있었지만, 추모제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 나무가 서 있는 자리는 공교롭게도 세상에서 제일 긴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나무뿌리 아래의 흙을 파헤치자 71년 전의 참극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침묵을 견뎌 낸 유해들은 뒤엉켜 있었고, 턱뼈에 붙어 있는 치아들 사이로 종종 총탄이나 탄피가 발견되었다. 누군가의 손을 육죄였던 구교의 파편도 나왔다. 가을 단풍이 한창인 오늘, 대전 동구의 골골골에서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962구의 유해를 세종시 추모의 집에 모시는 안치식이 열린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는 약 1250구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희생된 사람의 약 4분의1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까지 어느 정도 유해 발굴을 마무리하고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국립 위령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여행 목적지는 언제나 고민이다. 누구나 멋진 여행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행은 장소 모색부터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유명한 곳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새로운 것이 없고, 생소한 곳은 볼 것도 아는 것도 없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구경도 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적당한 곳을 모색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여행할 때는 풍광을 보러 갈 것인지 아니면 먹거나 쉬는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편이다. 월출산이나 두류산도 좋고 완도 명사십리나 순천 갈대밭도 좋다. 고희 어느 포구에 앉아 시 한 편을 써도 좋고, 벌교에서 포박을 안주 삼아 염상구의 절편한 삶 속을 들여다보아도 좋다. 사막이나 히말라야처럼 대체로 자연이 너무 승하면 사람이 들어설 틈이 없고, 사람이 승하면 대도시처럼 자연 색깔이 옅다. 이왕이면 자연과 인간,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섬마을이나 작은 읍내가 맞는다. 그런 곳은 사람이 자연을 거스르지도 않고 자연이 사람을 밀어내지도 않는다. 돌담이나 나무 한 그루, 고풍 하나도 자연이 만들고 사람이 길을 낸, 사람의 손길과 비바람

기고



정성호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교육상상플랫폼+ 상임대표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혁신을 경험해 왔다. '알파고 쇼크'가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을 자리 잡게 했다면,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이 일상이 되게 했다. 그 중심에는 재택 근무, 화상 회의, 원격 수업을 가능하게 한 비대면 디지털 기술이 있다. 물론 이전에도 비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은 존재했으나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쓰였기에 일상의 적용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와 직장을 비롯한 공적·사적 관계 모두에서 비대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었다. 당장 학교 수업만 하더라도 e-학습터, 온라인 클래스와 같은 학습 플랫폼이나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대학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town)에서 교수와 학생이 만나고 있다고 하니 그 변화의 정도는 뽕밭이 바다가 되는 수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팬데믹 상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소외되는 인간

보리밥나무의 추억과 안식 기도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들은 대전 인근 지역에서 예비 검속되었던 보도연맹원들이거나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이다. 수형복의 하얀 단추들이 나온 장소와 민간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연필이나 도장과 같은 유품들이 나온 장소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이들이 약간 다른 집단임을 추정하도록 해 준다. 전쟁 당시 참극의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미군 중령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 1800명이 이곳에서 처형되었는데,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는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주 지나 이곳을 찾았던 영국의 '데일리 워커' 특파원 윙버턴은 '나는 진실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이 비극적 사건들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이 보도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대전형무소 외에 다른 형무소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1948년 5월 전국(남한)의 18개 형무소에는 약 2만2000명의 수감자들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949년 8월에는 약 3만500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이렇게 수감자가 증가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정과 대대적인 좌익 색출 작업의 결과였다. 6·25전쟁이 발발한 후 얼마되지 않아 수원 이남의 전국 형무소에서 재소자들이 적법한 절차 이르기 시작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최소 1만1000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1950년 7월에 희생되었는데,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사람들은 1452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민군 점령 시기에는 형무소에서의 불법 처형이 없었을까?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대전형무소의 경우 다수의 우익 인사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1557명이 수복 직전에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형무소의 경우에도 약 1400명이 군경에 의해 처형된 후, 적대 세력에 의해 약 1000명의 우익 인사들이 희생되었다. 광주형무소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광주학생사건의 지도자였던 장재성도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산동고 부근에서 처형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의 형무소는 예방 학살과 보복 학살이 이어진 비극의 현장이었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멸실되어 그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는 전시 국가 폭력의 움직임 수 없는 증거이다. 또한 그것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유해를 발굴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와 역량의 표현이다. 그것은 망자에게는 안식을, 유족들에게는 위로를, 시민들에게는 평화를 제공한다. 그동안 외면했거나 방치되어 온 유해 매장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68개의 유해 매장지를 확인한 바 있다. 최근에 다시 조사해 보니 총 304개 장소가 확인되었다. 골골골 유해 안치식을 거행하면서 그동안 노심조사 발굴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여행, 영혼의 무늬

눈보라가 오랜 시간 함작으로 만든 곳이다. 사람이 자연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좋은 자연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창평의 고갈은 물과 사람을 불러들이고, 화순 도암의 달개 꽃개 구름개라는 지명은 이름부터 곱다. 자연도 주인이고 인간도 주인인 곳. 영산강은 사람을 순하게 만들고, 섬진강은 맑게 한다. 푸른 하늘은 영혼을 맑게 하고 맑은 햇살은 또 나그네의 발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러나 여행의 진짜 목적지는 사람이다. 설악산이나 순천만 경치는 한계가 있다. 풍경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빼어난 경치라도 인간을 끼워 넣지 못하면 흑백 사진처럼 평면화된 조각이고 인간과 조화를 이룰 때만 한 폭 그림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관찰하다 보면 지지는 법이 없고 나아가 경탄과 경외에 이르기까지 한다. 좋은 여행은 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이동시켜 사유하게 한다. 우리가 여행하며 해독하고자 하는 본질은 우리의 삶이고, 그 여행 과정에서 겪고 또 겪으면서 결국 찾고자 하는 보물이 나라는 본질적 자아가 아니던가. 여행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위로하고 고양시킬 때 빛난다. 꼭 멋진 곳을 택할 필요는 없다. 무심코 딛고 지나간 길옆의 꽃 하나도 여순 사건으로, 4·3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의 울분이 핀지 모르고, 붉은 노을은 누군가 흘린 피일 수 있으며,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 또 누군가의 울음소리인지도 모른다. 여행하다 보면 산이 산과 이어져 함께 있고, 물과 물

이 뒤섞여 하나로 흘러가듯 놀림게도 시간적 공간적으로 수만 길로 떨어진 그들과 내가 감물처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꽃잎 하나하나가 모여 꽃 한 송이를 이루고, 나무 하나들이 모여 숲을 이루듯 농민과 노동자나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이 결코 타자가 아닌 나라는 사실도 깨닫는다. 그들의 수고로움에 감사하고 그들의 노고에 손을 흔들어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도 한다. 흔히 인생을 여행이라고들 한다. 인생이 여행이라면 여행은 중국에 되돌아오이다. 그 때마다에 감탄사를 날기도 하고 침표와 느낌표를 찍는다. 그게 없으면 온전한 여행이 아니다. 그러나 좋은 여행이라면 돌아왔을 때, 아쉬움이 남거나 피곤하기보다 설렘이 증폭되어 내일의 더 큰 에너지가 된다. 여행하고 돌아오면 사진만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찍거나 찍힌 수많은 껍데기보다도 실은 우리 마음에 인간의 무늬, 삶의 무늬 몇 개는 새기거나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필름으로도 찍을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관계의 무늬, 깨달음의 무늬, 영혼의 무늬이다. 다리로 아프고 배도 고프지만, 영혼은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무늬 말이다. 실상 내 삶터가 가장 빛나는 여행지이다. 영혼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길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마음을 열고 사람을 찾아 영혼 여행을 나서 보자. 하남이나 본천 공단, 남광주나 말바우 시장, 진도 바다, 망월동 민주 묘지로.

비대면 사회,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다

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기술을 비판 삼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관계를 맺고, 유지할 줄 아는 주체적 인간을 요구한다. 기술을 활용한 관계 맺음에 미숙한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을 소통의 도구로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인간이어야 비대면과 대면에 구애받지 않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양극화를 만들어 내는 셈이다. 소통의 부재, 관계의 양극화, 인간 소외의 악마한 현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까 염려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학교는, 또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교육은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숙련공을 길러 내는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그간 인간(人間)이 아닌 인재(人才) 혹은 인재(人材)를 기르는 데 힘써 온 우리 교육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와 자원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특정한 기성과 태도를 익혀 뛰어난 '인재'가 된 인간은 결국 거대한 시스템의 도구로 소비될 뿐이다. 삶을 위한 교육은 그 중심에 '인재'를 둘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어야 한다. 미래 교육 그리고 그 이후를 그리는 지금, 기술의 쓰임새를 알고 상황과 요구에 맞게 부릴 줄 알면서도 더 나은, 혹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만들어 낼 줄 아는 주체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떠밀린 모양새지만 학교 현장에도 에듀테크(EduTech)를 통한 비대면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들어 미래 교육의 도래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에듀테크의 활용을 통한

비대면 교육은 교육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기술이 교육의 변화를 도울 수는 있으나 기술은 교육을 도구로 바꾸거나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겉으로 보이는 기술의 현란함에 기대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교육의 변화를 철학과 목표, 내용 수준에서 도모해야 할 것이다. AI와 같은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에 버금가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 기술을 활용하는 아이들이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술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와 기술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교육에서 고민할 것들이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며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lians)로서의 일상에 익숙하다. 이 익숙함을 넘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학교는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과정과 수업으로 구체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종류와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타인과 소통할 수 있으며, 이를 발판 삼아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창조하는 집단지성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점인 것이다.

社說

공사비 치솟은 도시철도 2호선 차질 없도록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9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불가·임금 상승과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2조 2114억 원(국비 1조 3268억 원·지방비 8846억 원)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를 3조 1414억 원으로 9300억 원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2호선은 시청-금호지구-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까지 1단계,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점당지구-수원지구-시청까지 2단계,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을 잇는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곳은 2단계 구간이다. 2호선은 대부분 땅을 얇게 파는 '저심도 공법'으로 건설할 계획인데, 지난 조사 결과 2단계 중 3.1km 구간은 가스관·케이블선 매장 등으로 저심도 공사가 불가능해 지하화로 설계를 변경해야 했다. 또 기존

다리를 재사용하려면 광산-점당대교 구간은 안전도가 충분하지 못해 영산강 하부에 횡단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증액 요청에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며 예비타당성 재조사와 증액분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공사비가 증액되면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도 1조 2600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따른 재정난도 걱정거리다. 물론 광주시가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수차례 정책 결정 반복으로 사업비 증가 원인을 제공하고, 부정확한 예측으로 재정 부담을 키운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공사비를 지나치게 줄이면 부실공사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광주시는 어떻게 해서든 국비 증액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박주선·김동철의 추락과 윤석열의 착각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전 국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호남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호남인들은 이러한 사실이 매우 답답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두 사람을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것마저 못마땅한 듯하다. 이들이 각각 광주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거물급'보다는 '퇴물급'이라 해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들 두 사람의 윤 후보 지지에 대해 '철세 정치인의 추락'이라고 비난했다. 시당은 특히 "두 정치인의 윤 후보 지지 선언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며 "박 전 의원은 과거 박근혜 후보를 대선에서 지지하겠다고 나섰다가 참모와 지지자의 만류로 포기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전두환을 미화하는 후보의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 가야 되겠느냐. 두 철세 정치인의 추락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다"고까지 혹평했다. 민생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역 정치인들도 "이들 두 명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 후광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지역에서 4선까지 한 사람들 지역 정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16년을 국회의원 할 수 있게 해 준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 욕심만 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호남 민심이 이렇할진대 이들의 지지가 윤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주선 전 의원은 최근 윤 후보를 만난 뒤 지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직접 영입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지만 윤 후보가 호남에서 거의 버림받은 이들의 합류로 지지를 상승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이는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無等鼓

가래떡, 개떡, 개피떡, 고사떡, 골무떡, 느티떡, 두텁떡, 망개떡, 무지개떡, 버무리떡, 봉치떡, 수리취떡...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한국적식주 생활사전-식생활'(2018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떡의 이름들이다. '골무떡'이나 '느티떡', '두텁떡', '봉치떡' 등은 생소하다. 사전을 찾아보니 '골무떡'은 멧쌀가루로 만든 골무만 한 질면이고, '느티떡'은 사월초파일 전후에 느티나무 어린잎을 찧가루와 섞어 찐 떡이라 나와 있다. 또 '두텁떡'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잔치때만들던 떡인데 찧쌀가루와 진강장 그리고 꿀과 잘게 다진 밤·대추·호도 등이 재료로 사용됐다. '망개떡'은 청미래덩굴잎 사이에 넣어 찐 떡이고, '봉치떡'은 봉치날(훈인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함을 보내는 날)에 마련하는 붉은팥 찧시루떡을 의미한다. 장구한 역사를 품은 전통 농경사회에서 떡은 절기별, 지역별, 재료별로 다채로웠다. '떡타령'에 그러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월 보름 달떡이요/ 이월 한식 송병(松餅)이요/ 삼월 삼진 속떡이로다." "강안도(강원도) 강냉이떡이요/ 피

안도(평안도)는 피떡이요/ 디미옥지는 고무마 떡이요/ 해변 농은 최가대떡이요/ 서울 농은 모피떡이라." 떡타령은 이처럼 절기에 맞춰 먹는 떡과 지역마다 다른 떡을 노래한다. 관혼상제나 세시풍속에 맞춰 먹는 떡에는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설날 떡국을 끓이기 위해 만드는 긴 가래떡에 장수(長壽)와 재복(財福)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그 한 예다. '봉치떡'에 들어가는 찧쌀은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고, 붉은팥과 대추에는 액을 피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1일 '떡만들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찧쌀 등 곡식의 가루를 사용해 떡을 만들고 나눠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요즘은 명절이나 의례 때 전통적인 떡을 만들지 않고 대신 기계화되고 프랜차이즈화된 떡집에서 개량된 떡을 사 먹는다. 그래도 새로 이사를 오면 이웃들에게 떡을 나누는 문화는 아직 살아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떡이 갖는 '나눔'과 '배려'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책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